

행정학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잡아주는



2023
김종규
ALL바른
선행정학

총론 · 정책 01

“2023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을 펴내며”

행정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공직에서 필요한 상식과 이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행정학의 바 이블, 선행정학은 편린적인 행정학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방대한 행정학을 이야기처럼 연결시켜 재밌게 풀어나간 책입니다. 강의 또한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개됩니다.

최근의 행정학 출제경향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정형화된 문제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새롭고 참신한 응용된 문제, 종합형 문제, 스토리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득점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2022년부터는 9급 행정학이 행정직렬 필수과목이 되면서 난이도도 높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급과 7급을 통합하여 기본서를 출간하게 된 이유입니다.

2023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급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 국가9급과 지방9급 시험 모두 난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난도에 대비하여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보완, 7급과 통합기본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7급에만 필요한 내용은 따로 “7급용”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행정학의 큰 즐거움을 이야기처럼 풀어나가는 흐름을 유지하되, 내용과 형식(디자인)은 2022판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깔끔하고 더 밝게 편집하였습니다.

둘째, 2021~2022년도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확장되어 출제될 영역까지 예측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편된 제도나 법령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비롯하여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 작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최근 행정학의 핫이슈까지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9급 행정학이 필수로 전환되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문강좌나 핵심적인 큰 줄기에서 약간 벗어난 디테일한 부분(법령조문이나 이론 각론 등)까지 완벽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딱딱한 기본서의 틀을 벗어나 공부하면서 헛갈리는 부분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암기법, 이해 위주로 공부할 부분,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편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제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대표기출문제들을 소개하였으며, 절마다 OX-지문풀이를 두고, 장마다 장 한눈에 보기를 수록하여 절단위 복습과 장단위 복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학의 큰 그림이 절마다, 장마다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곧 이어 출간될 2023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과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장·절 편제를 일치시키고, 전3권으로 분권 출간되었습니다.

여덟째, 2023 기출문제 선행정학과 부교재인 2023 선행정학 필기노트 기필고(기본서도 놀랄 필기노트)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학습효과를 한층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선행정학의 모든 교재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2023 기본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쉽게, 예시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예시를 제시하여 알기 쉽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새롭게 단장된 2023 선행정학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어떤 난이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모든 것이 올(ALL)바른 선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과 저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소통의 행정학, 담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 새롭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출간된 2023 선행정학으로 고득점의 기쁨을 누리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3 선행정학 교정에 힘써준 제자·조교들(김은선, 최시하, 황보준, 최소은, 김현경, 김소연)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고 명쾌하고 올바른 일등행정학입니다.
Return to 필수, Return to 중규

2022.6.25, 카스파 연구실에서

김중규

행정학, 얼마든지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

암기(편법)가 이해(正道)를 이기지 못한다.

- 1 암기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암기는 고통이다. 처음에는 암기가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진다. 반대로 이해위주의 공부는 갈수록 즐겁고 쉬워진다. 이해가 정답이다.

행정학은 시사적이고 유행을 탄다.

- 2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행정이론과 제도의 수명과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때문에 행정학 시험도 출제경향이 비교적 자주 바뀌므로 문제 유행을 잘 살펴야 한다.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들어가면 쉬워진다.

- 3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 되지 않고서는 절대 고득점 할 수 없다.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암기도 쉬워지고 응용문제도 대처가 쉽다. 서두르지 말고 기본개념부터 이해해 나가야 한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한 걸음씩 접근해야 한다.

단편적인 암기도 필요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 4 최근 객관식 시험에서도 전체의 흐름을 연결하여 묻는 포괄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행정의 흐름에 대하여 잘 정리해두자. 특히 처음 시작할 때일수록 단편적인 암기에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자. 숲 전체를 본 다음 나무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나무를 세세하게 다 볼 필요는 없다.

문제의 경중과 논점을 잘 가려 공부해야 한다.

- 5 행정학의 각 주제들은 나름대로 경중과 쟁점이 있다.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든지, 제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 학계에서 뜨겁게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 부분 등이 시험에 빈출된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최근 주변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분석해야 한다.

- 6 행정학 시험문제는 유행을 탄다.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기출문제 동향에 밝아야 한다. 예컨대 9급의 경우 10년 전 국가직 9급 문제보다 작년도 7급이나 특채, 군무원 시험문제가 더 유용하다.

각색이나 비약하지 말자.

- 7 자기 편할 대로 각색하여 이해하지 말고 법률 등에 표현된 내용이나 학자들의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그런 표현대로 지문이 출제된다. 아울러 논리적인 비약이나 주관적인 판단, 쓸데 없는 연관 짓기도 금물이다. $A \rightarrow B$, $B \rightarrow C$ 라고 하여 $A \rightarrow C$ 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행정학, 8개월 만에 정복하기

입문이론
(2개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기초부터 접한다.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경우 (입문)강좌를 선행수강하는 것이 좋다.

심화이론
(2개월)

심화이론단과 수강으로 행정학의 개념과 기본이론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진다.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경우 (입문)강좌를 선행수강하는 것이 좋다.

기출문풀
(2개월)

기본이론을 이해한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통해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파악한다.
이론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론과 문제를 연계시킨다.

압축·OX
(1개월)

요점과 핵심을 압축하여 반출되는 부분을 집중 정리한다.
반출지문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능력을 기른다.

동형·햇총
(1개월)

출제가 예상되는 엄선된 문제만으로 구성된 동형 모의고사식 강의로 실전능력을 기른다.
햇갈리는 부분을 정리하여 막판에 점수를 끌어올린다.

	강의일정	특징	중점
이론종합 (입문)	· 주 2회 · 연중개설 (2개월완성)	· 행정학에 대한 기초이론 소개 · 행정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워밍업 강의	기초 입문 강의
이론단과 (심화)	· 주 3회 · 2개월 완성	· 7·9급의 각각 특징과 출제경향에 맞춘 깊이 있고 차별화된 강의 · 행정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 주는 강의 · 행정학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키워 주면서도 나올 것만 콕콕 찌어주는 강의 ·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점수로 연결시켜주는 강의	개념과 기본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기출문풀	· 주 2회 · 2개월 완성	· 7·9급 각각 난이도를 반영한 시험별 맞춤 기출문제풀이 강의 · 답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 주는 강의 · 단원별 필수 기본문제 풀이로 기본이론 재정리 · 매주 단원별 모의고사 실시·해설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해주는 강의	기출문제를 통해 이론을 더욱 심화시키고 문풀 감각 배양
압축·OX	· 각 주 1회 · 2개월 완성	· 기본적인 주요 이론을 다시 정리 하고, 쟁점별 출제포인트를 짚어주는 강의 · 각 쟁점과 연관된 기출문제들을 연결시켜 풀이하는 입체적 강의 ·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압축해서 전반적인 이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의 · 반출지문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강의	요점과 핵심을 압축하고 반출되는 부분을 O·X 로 집중 정리
동형· 햇총	· 각 주 1회 · 1개월 완성 · 매년 시험 직전 개설	· 7·9급 난이도와 경향을 반영한 실전모의고사로 점수 상승과 함께 자신감도 상승 하도록 하는 강의 ·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실시 · 햇갈리는 부분을 총정리하여 고득점 유도	중요 핵심이론 정리부터 마무리 모의고사 문제까 지 총정리

제 1 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 제1절 행정의 본질
- 제2절 행정과 환경
- 제3절 행정의 변천
- 제4절 행정의 존재 이유 - 시장실패
- 제5절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 제8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이 장의 특성

이 장은 행정학이 시작되는 부분이니 당연히 생소하고 낯설 수밖에 없다.

행정학의 기본이 되는 주요 개념과 특성, 이념, 접근법, 행정학이론 등이 설명된다.

이 장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이어지는 장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잘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늘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장은 각종 이론들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들이 분분하여 약간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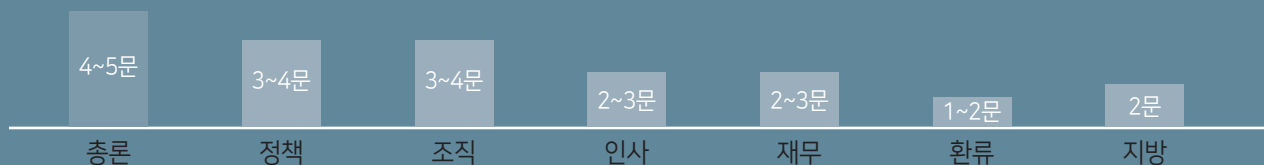
이 장의 공부요령

이 장을 공부하는 요령은 마음을 비우고 편견을 버려야 한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논리와 특성으로 전개되는지 원점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 등장하는 용어와 이론모형들은 앞으로 다음 장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므로 탄탄하게 개념 정립을 해두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고생하듯이 이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면 계속 힘들어진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올리듯이 차근차근 이해해 들어가면 자신감이 붙고 행정학이 재미있어진다.

첫 만남이 중요하다. 1장과 잘 사귀자...^^

분야별 출제비중



턱걸이나 팔굽혀펴기를
100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부터 하는 거다.



1.1 행정의 본질

질 한눈에 미리보기

제1절 행정의 본질	01 행정의 개념	B
제2절 행정과 환경	02 행정의 특성	D
제3절 행정의 변천	03 공공재로서의 행정	A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04 행정의 변수	D
제5절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05 행정기능	D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06 행정과정	D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제8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행정학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이다.”

모든 이론들이 한 편의 장편소설처럼 연결되어 있으니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공부하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흐름을 이해해야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행정학에 대한 내공과 응용능력도 길러진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행정학 입문단계에서 중요하다.

01 행정의 개념

기출이력 | 2022 지방9급 등 총5회 B

1 의의

1. 개념 정의의 곤란성

- ① 행정 개념은 시(時) · 공(空)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단일의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움.
- ② 행정이란 국민들의 사회적 욕망(행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활동
- ③ 행정의 어원인 administer의 개념에는 집행(관리)과 봉사의 의미가 담겨있음.

2. 행정 개념의 다양성

- ① 넓은 의미: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에 의한 공(公)행정(public administration)과 기업에 의한 사(私)행정(business administration)을 포함.
- ② 좁은 의미: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으로 정의되며, 이 경우는 공(公)행정만을 의미

1 관리

관리(manage)란 일이나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 흔히 결정(정치)에 대비되는 집행(경영)의 의미로 사용. 행정(공행정)과 경영(사행정)의 공통점이기도 함.

1 협치

협치란 협력적 통치로서 사회문제를 정부와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는 통치방식. 최근의 행정양식으로 흔히 거버넌스를 지칭하며 공동생산(co-product)이라고도 함.

2 행정의 개념적 특성

- ① 공공성과 이익성을 지향 : 공적 문제의 해결이나 공적 목적의 달성을 지향
- ②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
- ③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음 :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 ④ 정치과정과의 연계 : 정치성, 권력성

3 엽관주의(獵官主義)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정치적 보상)에 따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교체임용제 또는 공직경질제.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함께 발달한 제도

③ **최근 개념** :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공·사(公·私)조직들 간의 연결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활동. 협력적 통치(협치¹, 공동생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

3. 일반적 의미

- ①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 또는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
- ② 일반적으로 행정은 정치로서의 권력성(정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함)과 경영으로서의 관리성을 모두 포함²

2 행정개념에 관한 학설

[흐름 이해하기](#)

1. 행정관리설 (1880년대~1930년대) : 행정의 관리기술성

- ① **엽관주의**³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Pendleton법 제정 직후 **행정학 성립기**의 개념으로 가장 고전적인 행정 관점
- ② 행정을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의 **관리기술**(management)로 보는 기술적(技術的) 행정학의 관점
- ③ 행정을 정치와 분리(정치·행정이원론)하여 **경영과 동일시**하였으며(공·사행정일원론), 이 당시의 학자들(W.Wilson, L.D.White 등)은 과학적 관리와 원리접근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을 강조

꼭 알아두기 고전기 행정관리설(정치행정이원론) 관련학자

학자	저서	주요 내용
W.Wilson	행정의 연구(1887)	행정은 정치 밖의 사무(business) 의 영역임을 강조
L.White	행정학 입문(1926)	행정이란 사람과 물자의 관리라고 주장
L.Gulick	행정과학 논총(1937)	POSDCoRB(최고관리층의 7대기능)을 통하여 행정의 관리 기술성과 절약 및 능률 강조
Goodnow	정치와 행정(1900)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 정치는 국가의사를 결정(표명)하는 것이고 행정은 결정된 국가의사를 실천하는 것

↳ 국가의지

2. 통치기능설 (1930년대~1940년대) : 행정과 정치의 연계

- ①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나타난 행정국가시절의 개념으로 행정은 사회문제(시장실패)를 처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판단기능이라는 기능적 행정학의 관점

- 01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02 ... 다음 연도 5.31까지 ...
- 04 ... 3.31까지 ...
- 05 ... 상임위의 ... 예결위가 ...
- 06 ... 입법과목간 융통하여 ...
- 07 지출권한이 아니라 채무부담의무만 인정
- 10 ... 통해 비용절감은 가능하지만 구입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
- 11 감사원은 ...
- 12 ... 대통령 결산승인 이후이다
- 13 ... 4월 10일까지 ...
- 14 ... 차변에 계리한다
- 15 현금주의의 장점
- 16 ... 파악하지 못해 재무정보상 왜곡을 초래한다
- 17 ...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 18 ... 사후적 통제를 수행하는 ...
- 21 ...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 ...
- 22 총사업비제도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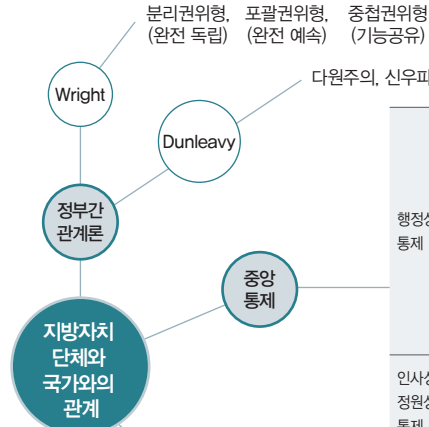
OX로 정리하기 **제5절 예산과정**

- 01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1월말까지 5개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 02 정부는 결산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한다?
- 03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04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4.30까지 각 부처에 시달하고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 05 예산은 예결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가 종합심사를 한다?
- 06 이용은 장·관·항 등 행정과목간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축성 유지방안이다?
- 07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은 국회가 지출권한을 인정해준 것이다?
- 08 사고이월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할 수 없다?
- 09 집중구매는 구매업무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 10 집중구매는 일괄구매를 통해 구입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
- 11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12 세계잉여금의 사용 가능 시기는 국회의 결산승인 이후이다?
- 13 기획재정부장관은 총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감사원에 송부한다?
- 14 복식부기에 따를 때 차입금의 감소는 대변에 계리한다?
- 15 발생주의나 복식부기가 오늘날 일반화되는 것은 회계처리가 객관적이어서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16 발생주의는 부실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정보상 왜곡을 막아준다?
- 17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 18 감사원은 정부 내에서 주로 사전적 통제를 수행하는 독립통제기관이다?
- 19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 총사업비제도는 1994년,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 21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200억 이상인 토목사업은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다?
- 22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소요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사업 사업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이다?
- 23 중앙 정부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 24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정답	01 X	02 X	03 O	04 X	05 X	06 X	07 X	08 O	09 O	10 X	11 X	12 X	13 X	14 X
	15 X	16 X	17 X	18 X	19 O	20 O	21 X	22 X	23 O	24 O				

7.2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질 한눈에 복습하기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완전 독립) (완전 예속) (기능공유)

다원주의, 신우파론, 계급정치론, 이원국가론

행정상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 의결의 재요구 지시와 제소
인사상·정원상 통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각종 유권해석 및 자침의 제공
	지방행정기구와 정원 통제
재정상 통제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 및 감독
	예산 및 결산 보고
	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시달
	지방채 발행(7채)의 통제
	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통제
지방재정진단제도	
재정투자심사제도	

	시정명령	이행명령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가위임사무
사유	위법, 부당한 처분	집행을 게을리 할 때
형식	기간 정하여 서면으로 명령	기간 정하여 서면으로 명령
불이행시	취소, 정지	대집행 또는 행·재정상 조치
불복	대법원에 소 제기	대법원에 소 제기

- | | |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 중앙과 지역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중앙통제와 감독의 용이 |
| 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중합행정 저해 •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소극적 협력	분쟁조정	수직적, 하향적, 타율적, 사후적 협력
적극적 협력	광역행정	수평적, 자발적, 능동적, 사전적 협력

공동처리	사무위탁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
	행정협의회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 법인격이 없고 구속력(강제력)없음
	일부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규약(계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법인격이 있으며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치단체
	자치단체연합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체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도시공동체	기초자치체인 시(市)들이 광역행정단위를 구성하는 방식
통합	복합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몇 개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합병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단위의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 창설(통폐합)
	흡수통합	하급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를 상급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방식
	전부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체(사실상 합병)

지방정부 상호간	동일 시·도내 기초단체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 결정	구속력 있음
	• 광역과 기초단체간 •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단체간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조정 결정	• 필요예산 우선 편성 • 직무상 이행명령 • 행정대집행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구속력 없음